

방송제 기획 줄거리:

[제목 :]

기획 - 권우현

촬영 및 편집 -

출연1 - 문태훈 (김현섭)

출연2 - 임수영 (지연진)

출연3 - 정민구 (정서준)

출연4 - 양정인 (강여진)

출연5 - 최옥만 (주승현)

출연6 - 유복희 (신유진)

S#1 방송국 내부

(페이드 인)

(다시 옥만이 수영에게 숟가락을 넣은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매우 당황하는 수영 그리고 같이 어리둥절하는 나머지 사람들. 수영이 당황하여 옥만이 먹여준 음식을 씹어서 삼킵니다. 그리고, 옥만에게 뭐냐고 묻는 수영)

수영: (당황하며) 지..지금 뭐하신거죠?

옥만: (당당하게 수영을 바라보며) 미션.

수영: (병썩 표정으로) 네..네?

(옆에서 보고 있던 정인 리액션을 한다. 그리고 태훈 옥만의 행동이 남들을 속이기 위한 행동이라는 듯 뇌피셜을 얘기한다.)

정인: (놀라며) 네? 미션하신거라구요? 이렇게 대놓고?

태훈: (뭔가 깨달았다는 듯) 아, 옥만씨 그거네 ‘블러핑’. 미션인 척 하면서 자기 미션 속일려고, 자자 다들 속지 맙시다.

정인: (표정이 풀리며) 아, 그런거죠? 깜짝이야. 와 게임 잘 하신다 다들.

태훈: (어깨를 으쓱이며) 이 정도야 뭐. 무서운 사람이네 옥만씨.

(태훈과 정인의 반응에 수영은 의아해하며 오히려 옥만을 의심한다. 그리고 여전히 무덤덤한 옥만. 그러나 태훈이 끝까지 아니라는 듯 물고 간다.)

수영: (미심쩍은 표정으로) 음.. 그래도 의심은 하는게 좋지 않아요? 제가 옥만씨 호명할게요.

태훈: (수영을 바라보며) 에이, 절대 아니야. 내가 이런 게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초장에 속여놓고 편하게 하려는 수작이야. 괜히 호명 기회 날리지 마. 여러분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옥만: (태훈을 살며시 노려본다)

수영: (고민하다) 끄응... 알겠어.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옥만의 돌발행동은 그렇게 넘어가고, 모두 다시 식사를 시작한다. 그 때, 밥을 다 먹은 민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를 치울 곳을 찾는다.)

민구: (쓰레기통을 찾으려 두리번두리번)

수영: (밥을 먹다 민구를 보고) 민구씨, 뭐 찾으세요?

민구: (흠칫하며 수영을 힐끔 보고) 아.. 그게 이거 버릴 곳을..

수영: (방송국 문을 가르키며) 아, 쓰레기통은 저기 밖에 있어요.

(민구, 수영이 가르키는 문을 바라본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열리지 않는 문. 민구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애기한다. 그럴 리가 없다며 태훈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간다. 그 사이에 문의 잠금이 풀려 문이 열린다. 민구를 놀리는 태훈과 그럴리 없다며 당황하는 민구.)

민구: (방송국 문을 바라보고 걸어간다) 아.. 감사합니다.

민구: (방송국을 문을 연다. 그러나 열리지 않는 문) 어.. 어 왜 이러지?

태훈: (민구를 보고) 문이 안 열린다고요? 에이, 장난치시는거죠? 그쪽도 미션하는건가?

태훈: (방송국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연다. 그러자 열리는 문)

태훈: (민구를 보며) 민구씨, 이것도 못 열면 어떻게 해요. 참나, 아니면 미션 뭐 그런건가?

민구: (당황하며) 아.. 아니 분명 안 열렸는데...

(민구가 당황하며 쓰레기를 버리러 가고, 장면은 다시 넘어가 밥을 먹고 있는 정인과 복희로 넘어간다. 대화를 나누는 정인과 복희 정인이 먼저 복희에게 말을 건다. 대화 도중 정인이 비꼬는 듯한 말을 하지만, 막상 정인은 순수하게 말을 했다.)

정인: (밥을 먹으며) 복희씨, 혹시 어디 사람이예요?

복희: 아, 저는 “구령” 사람이예요.

정인: 구령?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었나?

복희: 아,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기 순천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예요.

정인: 오, 그렇구나. 그럼 완전 깡촌?

복희: (멧쩍게 웃으며) 아.. ㅎㅎ 네, 그렇죠.

정인: (순수하게) 헤에.. 그런데는 완전 사람들 노예로 부리고 그런다던데. 으, 생각만 해도 무서워.

복희: (표정이 살짝 굳으며) ..저희 마을은 다들 좋은 사람 뿐이었어요.

정인: (여전히 순수하게) 하하 그렇죠? 복희씨가 이렇게 착한데, 좋은 마을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 나가서도 친하게 지내요!

복희: ...네.

(둘의 대화가 끝나고, 하나 둘 밥을 다 먹고 치우는 장면을 찍어주세요. 도시락 쓰레기를 다 치운 뒤, 다시 자리에 모여 이제 무엇을 할지 논의하는 사람들.)

수영: 이제 뭘 할까요?

태훈: (나서며) 일단, 우리 말부터 놓을까요? 아 왜 며칠 같이 있을 건데, 빨리 친해져야죠.

수영: (태훈의 말을 거들며) 저는 찬성. 어차피 나이대도 다 비슷해 보여서, 친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인: 오!! 좋아요!! 아니, 좋아!!

민구, 정인: (고개를 끄덕인다)

수영: (옥만을 바라보며) 옥만씨도, 괜찮죠?

옥만: (약간 침묵하다가) ..좋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훈이 옥만에게 장난스럽게 한마디 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태훈을 노려보는 옥만 둘 사이에 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이를 다시 중재하는 수영)

태훈: (옥만에게) 야 옥만아, 말 놓은 김에 하는 말인데 무게 좀 그만 잡아라. 좀 좋게 좋게 지내자고~

옥만: (옥만을 조용히 노려본다) ...

수영: (태훈을 바라보며) 아, 또 시작이네. 야 문태훈 너는 또 왜 시비를 걸어.

태훈: (뻔뻔하게) 아니, 장난 좀 쳐본거야. 뭘 또 그렇게 받아. 옥만, 장난 좀 쳐봤어. 그렇게까지 노려보냐.

옥만: (진지한 어투로 태훈을 바라보며) 장난도 사람을 봐 가면서 쳐라.

태훈: (발끈하며) 뭐? 아, 진짜. 니가 그렇게 대단하냐?

(둘의 분위기가 고조 되던 중, 수영과 정인이 나서서 말립니다.)

수영: (짜증난다는 듯이 둘을 말리며) 그만, 그만 좀 해. 분위기는 너가 다 망

치고 있어.

태훈: (화를 내며) 아니, 야.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게 맞는거냐?

정인: (살짝 작은 목소리로) 저.. 저도 태훈씨가 아니, 태훈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 매번 시비를 걸잖아..

욱만: (조용히 정인을 바라본다. 여전히 알 수 없는 표정. 그러나 묘하게 정인에게 관심이 있어 보인다)

태훈: (어이없다는 듯) 아니, 그래 내가 말을 먼저 하는 건 맞는데. 솔직히 저 태도가 맞다고 생각해? 다들 맞다고 생각하냐고. 민구, 복희 너네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잘못이야?

민구: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나는.. 모르겠어.

복희: (침묵한다) ...

수영: (혀를 내두르며) 아.. 좀 그만해! 너랑 욱만이는 그냥 붙어있지마. 그게 나야.

(수영이 태훈과 욱만을 떨어트려 놓는다. 태훈을 데려가 대화를하는 수영.)

수영: 야, 왜 그러는거야 자꾸. 너가 좋게좋게 지내고 싶다며? 근데 왜 그러냐고.

태훈: 몰라, 원래는 그냥 좀 장난치려고 했던거야. 아니 하... X발 이러면 나가리네. 이미지가 이렇게 돼서 뭘 연애야 연애는.

수영: ...

태훈: (수영을 바라보고는) 그냥 포기해야겠다.

수영: (살짝 놀라며) 진심이야?

태훈: (한숨 쉬며) 아니, 하.. 몰라. 망했잖아.

수영: 아니야, 안 늦었어. 가서 옥만한테 사과해.

태훈: 뭐? 사과하라고? 저 놈한테?

수영: (단호하게) 어, 사과해. 그리고 저 “놈” 아니야. 너는 연애가 아니라 뭘 할려면 그 마인드부터 바꿔야겠다.

태훈: (수영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고 한숨 쉬며) 하... 미안하다. 내 성격이 지랄맞아서.

수영: 알고는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

태훈: 사과.. 할게.

수영: 잘 생각했어. 가서 사과해.

(그렇게 태훈은 수영과 대화를 끝내고 옥만에게 간다. 옥만에게 사과하는 태훈. 옥만은 쇼파에 앉아있다. 그리고 둘의 화해를 숨죽여 보고 있는 나머지.)

태훈: (옥만에게) 미안하다, 옥만. 장난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너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네.

옥만: (태훈을 한참 바라본다)

태훈: (옥만의 대답을 기다리다 한 번 더 거들며) ...안 받아줄거야?

옥만: (마지못해) ...알았다

(둘의 화해가 끝나고 옆에 있던 정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정인: (한숨 쉬며) 휴..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아까 보니까 쟤가 하나를 찾았어! 일단 놀면서 차차 친해지자.

민구: (옆에서 조심스레 얘기한다) 이 분위기에.. 괜찮을까?

정인: (의기소침해져서) 어.. 어 좀 그런가?

수영: 아니야, 뭐라도 해야지. 어디 있어?

정인: (얼굴이 밝아진다) 아! 내가 가져올게 ㅎㅎ.

(페이드 아웃)

(페이드인)

(옥만과 태훈은 화해를 했지만, 여전히 서먹하다. 둘은 게임하는 것을 거부하고 따로 앉아있다. 나머지 4명이서 게임을 한다. 태훈은 의자에 옥만은 쇼파에 앉아있고, 중앙 테이블엔 4명이 앉아 있다. 테이블에 쌓여 있는 젠가)

정인: (수영을 바라보며) 태훈이랑 옥만이는 안 한 대?

수영: (쌓여진 젠가를 바라보며 대꾸한다) 응 좀 쉬고 싶대, 냅뒀. 원래 시간이 지나면 풀리고 그러잖아.

정인: (시무룩하다 표정을 피며) 그래.. 그럼 우리끼리 하자!

(그렇게 4명은 젠가를 진행한다. 이 때, 미션을 시도하는 민구. 정인의 차례에 정인이 젠가에 손을 올리는 순간. 민구가 헛갈린 척 정인의 손가락을 잡는다. 놀라는 정인과 헛갈렸다면 사과하는 민구. 그리고 냅다 정인의 손가락 치수를 물어본다. 그리고 옆에서 눈치챈 수영.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는 복희.)

정인: 내 차례네~

민구: (정인의 손가락을 잡는다.)

정인: (놀란다) 예?

민구: (연기톤으로) 어.. 어 미안.. 내 차례 줄 알았어.

정인: 아하, 그럴 수 있지~

민구: 그.. 그런데 정인아, 손가락 치수가 어떻게 돼?

수영: (웃으면서) 에이 ㅋㅋㅋㅋ, 민구 이걸 너무 티 난다.

민구: (수영의 말에 당황하며) 어.. 어?

정인: (순수하게) 응? 내 손가락 치수는 왜? 그리고 뭐가 티나?

수영: 야 ㅋㅋㅋㅋ, 이건 누가봐도 미션이잖아. 민구 진짜 연기 못한다.

민구: 아.. 아는데..

수영: 아니긴~ 그럼 호명한다?

민구: (당황하며) 어.. 어어...

(당황하는 민구, 그리고 수영은 민구를 호명한다.)

수영: (손을 들며) 저, 호명할게요~ 정민구! 미션은 손가락 치수 물어보기? 알아내기? 손가락 치수 알아내기! 로 하겠습니다~

(수영의 말이 끝나고 모두가 방송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좀처럼 빨리 나오지 않는 방송. 정인이 입을 열려던 찰나, 방송음이 나오고 방송이 시작된다.)

정인: 에이, 아닌거 아니야? 방송이..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정민구님의 미션이 들켰습니다. 정민구님은 오늘 마피아가 되실 수 없습니다. 남은 호명 기회는 한 번입니다. (방송 종료음)

(방송이 끝나고, 민구를 은근히 놀리는 수영과 멀리서 한 마디 거드는 태훈. 기분이 좀 풀렸는지 게임에 합류한다. 그리고 쇼파에 앉아 있던 옥만도 조용히 다가와 중앙 테이블에 앉는다. 그런 옥만에게 멋쩍게 말을 건네는 태훈. 분위기가 꽤 풀린다.)

수영: 민구야~ 다음부터 잘하자?

민구: (수영을 눈을 피하며) 어.. 으응..

태훈: (웃으며) 푸흠.. 아니 민구야 너는 게임 진짜 못한다. 이 형이 하는 거 보고 배워. (일어나서 중앙 테이블로 다가오며) 나도 같이해도 되지?

옥만: (조용히 다가와 테이블에 앉는다)

태훈: (테이블에 앉는 옥만을 보며) 어.. 옥만 너도? 그래 다 같이 하자. 아깐 내가 진짜 미안했다 옥만.

옥만: (고개를 끄덕인다)

(6명이 젠가를 하는 장면을 소리 없이 담아주세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표시해주세요. ex) 벽걸이 시계가 4시->5시로 흐르는 장면.)

수영: (기지개를 펴며) 으으~ 재밌었다.

정인: 그니까~ 옥만이가 은근 게임을 잘하네.

옥만: ...

수영: 이제 좀 쉬어야겠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정인: 어, 나도 같이 가자!

(수영과 정인이 화장실을 먼저 가고, 민구도 화장실을 간다며 나간다. 방송국 내부에는 태훈, 복희, 옥만이 남아있고 옥만은 쇼파로 가서 앉는다. 복희에게 말을 거는 태훈. 대놓고 작업을 거는 느낌)

태훈: (복희를 바라보며) 복희, 아까 보니까 너 젠가 좀 하더라?

복희: 아.. 응 고마워 ㅎㅎ.

태훈: (머리를 긁적이며) 내가.. 좀 욕하는 성격이 있어서. 아까는 못난 꼴 보여서..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복희: (손사레를 치며) 아니야, 나는 괜찮아.

태훈: (살짝 느끼하게) 복희야, 너는 정말 착하다. 나는 너같은 사람이 좋더라.

복희: (멧쩍게 웃으며) 아.. 하..하.. 고마워

태훈: (복희에게 악수를 건네며)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복희: (망설이다 태훈의 손을 잡는다)

옥만: (그리고 말없이 그 둘을 지켜보고 있는 옥만)

(태훈이 복희에게 이상한(?) 작업을 거는 동안 화장실을 간 수영과 정인 시점, 민구 시점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서로 미션을 성공했는지 묻는 수영과 정인.)

민구: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며 나지막하게) X발...

(다시 장면이 전환되어 복희와 태훈이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화장실에 갔던 수영과 정인이 돌아온다. 순간 방송국을 둘러보고 민구는 어디갔냐고 묻는 수영. 태훈이 대답한다. 그리고 잇따라 들어오는 민구. 그리고 방송이 나온다.)

수영: (방송국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짝 둘러보고 나서) 어? 민구는 어디갔어?

태훈: 아, 민구도 화장실 간다고 아까 나갔어.

수영: 아 그래?

민구: (방송국 안으로 들어온다)

수영: (들어오는 민구를 바라보며) 어, 왔구나?

민구: 어? 어..

방송: (방송 시작음)

정인: (방송 소리를 듣고) 어? 방송 나오려나 보다!

(모두가 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방송: (NR) 오늘의 마피아가 결정되었습니다. 마피아는 “남자”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피아가 나오지 않은 여자쪽에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션은 동일합니다. 9시까지 먼저 성공한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9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음)

수영: 뭐야, 남자쪽에서 마피아가 나왔다는데?

태훈: 그렇네?

수영: (태훈에게) 너 아니야?

태훈: (수영을 바라보며) 아니거든?

정인: (옥만을 바라보며) 혹시 옥만?

옥만: (정인과 눈을 마주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

정인: (옥만과 눈을 마주치고) 아.. 아닌가

수영: 민구는 실패했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옥만이가 나한테 뭐 먹인 거 맞는거 아니야?

태훈: 아니, 그건 진짜 아니라.. 어 그러면 남은 건 난데?

수영: (태훈을 노려보며) 그럼 너 맞네.

정인: (맞장구치며) 맞네!

옥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태훈: 엥? 나 진짜 아니라니까.

수영: 됐고, 이제 미션이나 해야겠다.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9시까지 수영과 정인이 미션을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시간의 흐름을 넘깁니다. 민구에게 귀엽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유도하는 수영. 볼펜을 들고 옥만에게 다가가려 하

지만 겁나서 다가가지 못하는 정인의 모습들을 찍어주세요.)

수영: (민구에게) 나, 아까 태훈이랑 옥만이 싸우는 거 말릴 때 되게 무서웠다?

민구: (어쩔 줄 몰라하며) 어.. 어 그래 나도, 무서웠어.

수영: 아니~ 나 진짜 벌벌 떨었는데.

민구: (수영을 힐끗힐끗 보며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고) 그니까.. 너 멋있더라.

수영: 그거 말고, 나 되게 무서워하지 않았어?

민구: 잘.. 모르겠어.

수영: 아니, 나 귀엽지 않았냐고.

민구: 어? 어..

(옆에 보고 있던 태훈이 눈치챘다는 듯 끼어들어 수영의 미션을 호명한다.)

태훈: (수영을 바라보며) 너 그거 미션이지?

수영: (당황하며) 어? 아니거든

태훈: 맞네, 미션. 여기 임수영. 미션 귀엽다는 소리 듣기.

수영: 아.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임수영님의 미션이 들켰습니다. 임수영님은 오늘 의사가 되실 수 없습니다. 남은 호명 기회는 0번입니다.

수영: 하..

태훈: (웃는다) ㅋㅋㅋ

민구: (수영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해..

수영: (민구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뭐가 미안해 ㅎㅎ.

(다시 장면이 바뀌어 볼펜을 들고 옥만을 바라보며 우물쭈물하는 정인. 옥만은 앉아 있다가 그런 정인을 바라본다. 눈을 마주치는 정인과 옥만. 눈을 마주치자 정인은 고개를 휙 돌린다. 그리고 결국 옥만에게 낙서하는 것을 포기하는 정인.)

정인: (볼펜을 들고 옥만을 바라보고 있다.)

옥만: (기적을 느끼고 정인을 바라본다.)

정인, 옥만: (눈을 마주친다.)

정인: (눈을 돌리고 한숨을 내쉬며 작게 읊조린다.) 어후.. 무섭네..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시간은 흘러서 9시가 지났다. 다들 다시 중앙 테이블에 모여있다. 방송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방송이 나온다.)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오늘의 의사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호감도 투표 및 마피아의 지목이 있겠습니다.

(방송이 나오고 놀라는 정인, 수영.)

수영: (살짝 놀라 정인과 복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응, 너 미션 성공 못 했어? 복희, 너도?

정인: 응, 해헤..

복희: 나도.. ㅎㅎ

(수영, 정인, 복희가 함께 웃는다. 옆에서 같이 웃는 태훈. 옥만은 여전히 무표정이다. 민구는 수영에게 미안한 듯이 표정이 약간 우울하다.)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바로 호감도 투표로 넘어간다. 어떤 방(아나부스 안)에서 무언가를 종이에 적고 넣는
사람들 한 명씩 종이를 넣는 모습만 보여주고, 옥만만 마피아 용지를 보고 있는 장면
을 넣고, 페이드 아웃)

Ep2. END